

1980년대 창작된 중편소설들의 일반적특징

김 광 일

1980년대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이 더욱 심화발전되는 속에서 우리 인민이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며 새로운 80년대속도를 창조하고 비약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문학분야에서는 다른 여러 형태의 작품창작과 함께 중편소설창작이 더욱 힘있게 벌어져 귀중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할수 있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며 우리의 문학예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세워야 하겠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9권 287페이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비주의를 없애고 문학작품창작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큰 형식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1978년부터 장, 중편소설 100편창작전투를 벌리도록 하시고 이 전투의 불길이 1980년대에 들어와 더욱 힘있게 타번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80년대에는 어느때보다 중편소설이 더욱 활발하게 창작되어 높은 창작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내용에 있어서도 훌륭한 성과작들이 많이 나왔다.

중편소설들인 《병사의 고향》(1982. 김동욱), 《불꽃》(1980. 박찬은), 《탐사대원의 수기》(1980. 백보흠), 《첫 교원》(1981. 송병준), 《나의 교단》(1982. 최상순), 《부루나의 밤》(1983. 림종상), 《생활의 언덕》(1984. 김교

섭), 《세대》(1985. 김삼복), 《여덟시간》(1986. 리희남), 《너준의 일기》(1987. 리계심), 《향토》(1988. 김삼복), 《벗》(1988. 백남룡), 《철산봉》(1988. 허여극), 《들장미》(1989. 박태수) 등은 문학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할만 한 훌륭한 작품들이다.

1980년대의 중편소설은 일련의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1980년대 창작된 중편소설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생활반영에서 보다 새롭고 다양한 분야를 설정하고 형상한것이다.

이 시기 중편소설은 조국해방전쟁이나 현실생활분야에만 국한되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1980년대의 벽찬 현실을 적극 반영하면서 생활반영의 폭을 더욱 넓히였다. 그리하여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인 탄광, 광산으로부터 시작하여 공장과 농촌, 대건설장들과 철도운수, 수산전선, 염전 등 사회주의건설의 초소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가는 일군들과 로동자, 농민, 과학자,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들의 투쟁을 적극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교육자들과 보건일군들, 체육인들, 법무일군들도 적극 형상하였다.

그러한 작품들로는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 《기적소리》, 《소금꽃》, 《생활의 언덕》, 《세대》, 《성장의 봄》, 《나의 교단》, 《해빛》, 《영예》, 《벗》 등을 들수 있다.

이밖에 혁명전통주제와 조국해방전쟁주제, 전후복구건설을 비롯한 지난 시기의 사회주의건설투쟁을 반영한 작품창작에서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생활을 반영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적후투쟁의 나날 동지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 녀성군인들

의 모습을 그린 중편소설 《너준의 일기》, 전후 신해방지구에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해 투쟁한 한 제대군관의 모습을 그린 중편소설 《새벽에 온 사람》과 같은 작품들이 나왔다.

력사주제의 창작에서도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폭넓게 반영하여 거란침략자들과의 싸움에 한몸바쳐 나선 한 처녀의 모습을 그린 중편소설 《설죽화》, 고조선시기 지배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그린 중편소설 《부루나의 밤》과 같은 작품들이 나왔다.

1980년대 중편소설 창작에서는 새로운 생활분야도 적극 반영하였다.

과학환상중편소설 《푸른 이삭》 등을 창작하여 중편소설에서 과학환상주제분야를 새롭게 개척하였다. 그리고 보안일군들이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고 날뛰는 적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는 과정을 그린 중편소설 《마지막 40일》, 《금가락지의 비밀》 등과 같은 작품을 창작하여 반간첩투쟁주제도 처음으로 개척하였다.

이밖에도 조국통일주제(중편소설 《혈맥》), 해외교포운동주제(중편소설 《상봉》)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새롭게 창작되었다.

1980년대 중편소설은 이와 같이 생활을 폭넓고 심오하게 반영하고 보다 다양한 생활분야를 형상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 창작된 중편소설들의 특징은 다음으로 시대의 요구를 적극 구현하여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적성격창조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한것이다.

1980년대는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며 진심으로 따르고 충직하게 받든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당과 수령을 가식도 변심도 없이 신념과 의리로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명예나 안일을 바람이 없

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친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워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깨끗한 량심을 바치고 열렬한 헌신성을 발휘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1980년대 중편소설은 이러한 시대적요구를 구현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누가 보건말건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 깡그리 다 바치는 참된 혁명가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중편소설 《철산봉》에서는 일본땅에서 나라없는 설음을 뼈에 사무치게 새기다가 조국의 품에 안긴 이후 자신에게 인간의 참된 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그리었다. 소설은 그들의 형상에서 당과 수령, 조국의 고마운 은덕에 보답할줄 아는 인간의 의리와 량심을 두드러지게 그려내었다.

중편소설 《탐사대원의 수기》의 주인공은 북부지구 산속에서 10여년간의 투쟁을 벌려 끝내 유색금속광물을 찾아내는 한 지질기사이다. 소설은 자신의 명예보다 유색금속광물을 하루빨리 찾아내어 조국의 룡성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오직 하나의 지향을 안고 깨끗한 량심을 바쳐나가는 지질기사 리정모의 모습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순결한 충정과 량심,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치는 참된 인간의 열렬한 헌신성을 두드러지게 그려냈다.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 《향토》, 《들장미》, 《해빛》, 《나의 교단》 등의 작품들에서 주인공들은 주로 수령에 대한 충정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평가나 보수, 자기 개인의 안일보다 당과 혁명의 요구를 심장에 새기고 그 부름앞에 자신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인간들로 그려졌다.

1980년대의 중편소설은 이밖에도 80년대 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갈데 대한 시대의 요구를 구

현하여 높은 목표를 세우고 불타는 열정으로 이악한 투쟁을 벌려 놀라운 결실을 안아오는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들의 형상도 창조하였다.

이러한 형상을 창조한 작품들로는 중편소설 《높은 곳으로》, 《그 이듬해》, 《첫 생활》, 《벼꽃》 등을 들수 있다.

1980년대 창작된 중편소설들의 특성은 다음으로 구성조직과 묘사 등 예술적형상수준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한것이다.

이 시기 중편소설은 중편의 특성에 맞게 생활을 아담하게 반영하면서 구성조직과 묘사 등에서 새로운 수법들을 적극 탐구함으로써 특색있고 인상깊은 형상세계를 펼쳐놓았다.

중편소설 《여덟시간》에서는 인물관계조직에서 대조의 수법을 적용하고 이야기줄거리조직에서 회상식구성수법을 도입하였다. 즉 여덟시간동안의 극적인 이야기속에서 여

러 인물의 과거와 현재생활을 밀접히 련관시켜 펼쳐보이고 참된것과 거짓이 명백하게 밝혀지는 독특한 구성을 조직하였다.

중편소설 《향토》에서는 세명의 등장인물에게 묘사시점을 나누어주고 그 시점에서 묘사를 심화시켜 인간과 생활을 다양한 측면에서 실감있고 특색있게 그리었으며 중편소설 《세대》에서는 생동하고 감각적인 섬세한 묘사로 화폭들을 서정성이 짙게 하였다.

중편소설 《철산봉》에서도 회상식구성수법과 반복법, 대조대비 수법을 잘 리용하였으며 자연현상을 하나 그러도 인간심리에 굴절시켜 묘사하는 좋은 우점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중편소설이 활발히 창작되고 창작에서 좋은 경험들이 마련된 년대였으며 그것은 우리 주체문학사를 더욱 풍부히 한 귀중한 성과로, 문학발전에 이바지하는 귀중한 경험으로 되었다.